

여성주의 책, 혼자 읽지 말아요 ‘같이 읽는 책’

언니네트워크 책 읽기 회원 소모임

‘같이 읽는 책’은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의 책 읽기 회원 소모임입니다. 읽고 싶은 신간이 나오면 족족 책을 사지만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어느새 읽지 않은 채로 쌓인 책이 많아지는 사람, 여성주의에 대해 내 안에 말을 쌓고 싶은 사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혼자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5년 3월 8일 여성의 날, 첫 모임을 시작으로 비혼·퀴어·여성주의를 주제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이라고 말하지만 여성주의 서적 그 언저리에 있는 책들, 종종 순전히 재미를 위한 책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나기 언니네트워크 운영지

구성원

9명
(나기, 나다로, 민, 밀알, 수민, 은하, 이리온, 제이, 뽕)

쉬고 있는 회원도 있고 그 달 읽는 책에 따라, 각자 사정에 따라 못 나오는 일도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모임마다 4~5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니네트워크를 후원하는 회원이어야 같이 읽는 책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성원이 되고 싶지는 않고 이 달에 같이 읽을 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연락을 주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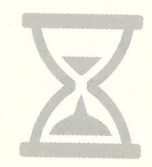
연락 방법

네이버 밴드
구성원이 아닌 분들에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어요.
<https://www.facebook.com/feministreader>



모이는 횟수 및 시간

4주에 한 번 모임입니다. 대개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쯤 만나 2시간을 예상하지만 10시를 훌쩍 넘길 때가 많습니다.



회비

회비는 따로 없고 모이는 장소에 따라 다과비가 드는 경우 각자 부담!

같이 읽는 책 더 알아보기 Q&A

Q. ‘언니네트워크 회원 소모임’이라고 했는데 언니네트워크는 뭐죠?

언니네트워크는 2004년 11월 27일에 설립된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균열을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길 원하는 언니들과 함께 여성친화적인 공간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언니네트워크의 미션이에요. 언니네트워크는 여행, 음악, 놀이, 글쓰기, 영화 등 다채로운 여성주의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기를 꿈꾸고, 성정체성, 피부색, 경제적 계급, 나이, 지역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여성주의를 통해 끝없이 질문합니다. 다양한 차이에 기반한 더 튼튼하고 역동적인 여성주의 네트워크를 엮어나가는 것이 목표!

Q.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나요? ‘언니’라고 했는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회원이 아니면 정규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같이 읽는 책이 읽기로 한 책을 같이 읽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언니네트워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 회에 함께하는 걸 열어두고 있어요. 연락은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나 메일, 문자로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모임 공지가 올라갈 때 연락처도 함께 공지하니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의 ‘언니’는 매우 넓은 의미라 여성주의에 동의하고 여성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두가 포함됩니다. 지금도 비여성회원이 있고요. 페미니스트 언제나 환영!

같이 읽는 책 더 알아보기 Q&A

Q. 책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책이 정해지면 4주 동안 책을 읽고, 모이기 일주일 전쯤 각자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네이버밴드에 미리 올립니다. 미리 올리지 못하면 구절을 표시해 두었다가 당일 모임에서 읽어 주기도 해요. 진행자는 따로 없고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절을 나누고 그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가 어떤 것이 인상 깊었는지, 왜 인상 깊었는지 공유하는 데 유용해요. 책은 읽었지만 모임에 오지 못한 구성원과도 책을 나눌 수 있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후기를 남길 때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Q. 다음 읽을 책은 어떻게 정하죠?

투표를 합니다. 구성원들이 읽고 싶거나 '이즈음에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각자 조사해서 밴드에 올려 투표를 하기도 해요. 책모임을 하는 날, 의견을 내서 다음 모임에서 읽을 책을 정하기도 해요. 언니네트워크 회원 소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언니네트워크 회원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Q. 여성주의라는 큰 틀에서 주로 읽게 되는 책들은 어떤 것인가요?

크게는 비혼, 퀴어, 여성주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반드시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출산을 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책들을 주로 찾아서 읽고 있어요. 보수적인 성규범, 이분법적인 성별구조, 이성애 중심의 결혼 및 가족제도,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가 야기하는 폭력도 우리의 주 이슈고요. 그것을 벗어난 대안을 찾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읽은 책

- 4월 『자립기』 마이클 J. 로젠필드 | 갈무리
- 5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 은행나무
- 6월 『IS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전17권) 로쿠하나 치요 | 학산문화사
- 7월 『마흔 이후, 누구와 살 것인가』 캐런 루이즈 진 | 심플라이프
- 8월 (휴가)
- 9월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 | 새물결
- 10월 『이기적 섹스』 은하선 | 동녘

같이 읽는 책의 올해 주요 활동 및 계획

#1. 3월 첫모임의 기억

첫모임에서는 키워드 카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무엇을 바라고 책모임에 들어왔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 색색깔 종이카드에 내가 읽고 싶은 주제를 키워드로 적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고 누가 어떤 것을 썼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합의한 주제가 비혼 + 퀴어 + 페미니즘!

#2. 6월 퀴어문화축제의 무지개책장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에는 퀴어를 주제로 책읽기를 진행하고 퀴어퍼레이드 당일 부스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빨주노초 파보로 책장을 꾸미고 퀴어 + 페미니즘을 주제로 다양한 책들을 구비해서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달에 읽은 『IS :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에서 책모임 회원들이 느낀 점들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3. 10월 대만 여서점 방문 (예정)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언니네트워크 회원소모임연합으로 아시아의 페미니스트를 만나는 아시아프로젝트(손에 손잡고)가 진행됩니다. 대만에서 오랫동안 페미니즘, 퀴어 서적을 팔고, 대만의 여성주의 행사 정보가 모두 모여 허브가 되는 '여서점'에 방문해 서점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대만과 한국의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